“평화드림 5만리” 탐방보고서
- 평화와 연합의 의미를 찾아서 -

평화드림 5만리 참가자 來模 김예목

“평화드림 5만리”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동족상잔의 참혹한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 · 25를 평화의 날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민족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두 동강 난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은 대부분 평화와 연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갈등 섞인 냉랭한 바람은 더 심해지고 있으며, 나라들 사이에서도 전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만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의 아름다운 소리를 한반도를 포함한 온 나라와 민족 위에 담대하게 외치어 평화와 연합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작지 않은 가장 멋진 일일 것이다. 이 일은 평화와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그 일을 하도록 준비된 한 사람, 이 세계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 공동체가 바로 “평화드림 5만리”였다. 여섯 달 동안 함께 협력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이 공동체의 마음은 평화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연합을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유럽 5개국 10개 도시를 탐방하며 평화와 연합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함께 손잡고 서로 웃는 평화와 연합의 씨를 뿌리기 위해 부름받은 32명의 특사들의 손에는 복음과 사랑이란 연장이 들려있었고, 그 얼굴은 평화를 향한 염원과 비장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평화의 길을 만들어 연합이란 큰 불을 일으키게 될 여정이 비로소 펼쳐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평화를 노래하고 수호할 것을 결의하는 출정식을 통해 평화의 특사로 선택된 평화드림 5만리 공동체가 구름과 햇빛의 응원을 받으며 먼저 도착한 곳은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에서 보고 느낀 것이 많지만 나에게 있어 가장 감명을 주었던 곳은 암스테르담의 코리 덴 봄 하우스와 헤이그의 이준 유적지였다.

코리 덴 봄 하우스는 시계방을 운영하던 덴 봄 일가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위하여 친히 내어준 은신처이자 집이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템 봄 가족은 발각되면 죽음에 처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었다. 그러나 1944년 2월 28일, 덴 봄 가족은 배신을 당해 그들의 선행이 나치에 발각되면서 덴 봄 일가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딸 코리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모두 사망하고 만다. 코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도 많은 여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증언을 전함으로 많은 여성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석방한 코리는 전쟁이 끝난 후 복음전도사가 되어 전 세계를 여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는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 집에 박물관을 세워 고통받은 유대인의 삶과 그들을 돕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덴 봄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비록 텐 봄 하우스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평화와 사랑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코리 덴 봄 일가의 아름다운 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코리 여사의 말처럼 평화와 연합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나라와 민족 간에 얼마든지 평화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 코리 덴 봄 하우스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는 "오직예수, 성경대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증언으로만 가능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나 또한 코리 여사처럼 세계 곳곳에서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 속에 통곡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화와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은 내가 그 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지역 중 한 곳이며, 평화드림 5만리 일정이 계획된 후 제일 기대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고종 황제가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통해 일제의 을사늑약 무효와 대한제국의 평화를 호소하도록 임명한 헤이그특사 중 이준 열사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준 열사의 나라를 위한 원통함과 평화를 위한 호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 묘적지와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준 열사 묘적지는 이준이 1907년 7월 14일 머나먼 이국 땅 헤이그에서 순국한 후 55년 동안 서울 수유리 선열묘역에 안장할 때까지 묻혀있던 곳이다. 이 곳 묘적지의 돌은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돌로 만들어졌다고 가이드 분이 알려주셨다. 비록 그때는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냉대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준 열사가 남긴 한국인의 기개와 평화사상이 자리 잡혀 헤이그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음을 눈으로 보면서 이준 열사가 그토록 바란 세계의 평화와 정의로운 나라를 내 손으로 이룩해 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1963년 10월 55년 만에 반쪽이 된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토록 평화를 위해 호소했던 한반도가 분단된 걸 보고 이준 열사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했을 지를 생각해보니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도와 헌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준 열사 묘적지 앞에서 추모의 노래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드는데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흔들리지 않았던 독립을 위한 갈망과 국권회복을 위한 담대한 기강을 닮아가 평화와 연합을 위해 앞장서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묘적지를 탐방하고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갔다. 이 기념관은 유럽에 하나밖에 없는 항일 독립운동유적지로 이준 열사의 평화를 향한 희망과 뜻을 이루지 못한 원통함이 함께 향기를 퍼뜨리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원래는 호텔로서 헤이그특사들이 이곳에 머물며 만국평화회의를 준비하였고, 이준 열사는 이곳에서 1907년 7월 14일에 순국하였다. 시간이 별로 없어 자세히 기념관을 둘러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세력이 충돌하는 현장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평화와 일치를 위해 강력하게 호소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한 이국 열사의 헌신과 호소를 느낄 수가 있었다. 이준 열사처럼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의 평화에 앞장설 수 있어야하겠다.

네덜란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떠난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에 도착하여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감명을 받았던 것은 유대인을 기억하는 독일의 모습이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로 나치정권 때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기억한다는 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일 수도 있지만 독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유대인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도시 곳곳에 만들거나 남겨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를린 탐방을 하며 본 유대인 박물관이 이러한 상징물 중 하나인데 이 박물관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나 또한 이 박물관에 조성된 유대인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조형물과 사람들 얼굴로 만들어진 둥그런 납덩이 위를 걸으며 그 소리를 들어봄으로 유대인의 아픔과 슬픔을 잠시 생각해보는 길을 걸으면서 전쟁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평화와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유대인을 추모하며 기억하는 독일처럼 나 혼자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평화와 연합을 위해 함께하며 서로 발맞추어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평화와 연합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야 함을 깨닫고서 그 평화와 연합의 아름다운 조화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평화 퍼포먼스를 할 때였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자 자유의 상징이 되었을 뿐 아니라 1990년의 통일과 같은 격동의 통일사를 함께 한 건축물로서 오늘날에는 유럽의 단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문 앞에서 평화 퍼포먼스를 할 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며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호의적으로 반응해 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노래를 불러 주었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껴안고 고마워하였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연합하고 평화를 위해 앞장 설 사람들임을 깨닫고서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 내밀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독일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미소 짓게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다음으로 떠난 곳은 체코 프라하이다. 사실 체코 프라하는 2주 동안의 여정 중 가장 짧게 머문 곳이기는 하지만 15세기 종교 개혁자로서 가톨릭의 타락을 앞장서서 알리다 로마에서 화형당한 얀 후스의 기상과 진리를 위한 열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독일 비텐베르크가 루터의 도시라면 체코 프라하는 얀 후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8년 전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터라 더 감회가 새로웠다. 평화를 외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얀 후스의 발자취가 곳곳에 자리 잡힌 프라하를 둘러보면서 나 또한 얀 후스처럼 진리를 위해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다가 오직 예수의 신앙과 믿음만을 후세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가는 위대한 종교자

김예목으로 세상에 남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심어놓은 평화와 연합, 사랑과 일치의 불씨가 세상 곳곳에서 타올라 후스의 뒤를 이은 “후스파”처럼 “예목파”로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더 할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평화를 위한 호소와 연합을 위한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야 함을 깨닫고서 프라하 광장에서 더욱 열심히 현수막을 흔들고 찬양을 불렀다.

체코 프라하에서 얀 후스의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폴란드로 발걸음을 옮겼다. 폴란드에서 탐방한 도시는 크라쿠프와 오시비엥침(아우슈비츠)였다. 두 도시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곳이다. 크라쿠프에선 크라쿠프 광장에서 찬양 및 서명운동을 할 때 1000명 서명을 달성하였다. 평화와 연합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음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순간이었으며,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평화와 연합의 보배로서 나타나지는 것 같아 참으로 뿌듯하였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길은 실수가 없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폴란드 오시비엥침(아우슈비츠)에서는 독일 나치정권이 히틀러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대량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하였다. 입구 앞에서부터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ARBEIT MACHT FREI)”는 현판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지를 생각하며 마음 한편이 먹먹해 왔다. 이 수용소는 유대인 희생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희생된 유대인들의 신발부터, 가방, 안경, 옷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보존되어 있었다. 나치 정권은 희생자의 유품은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장신구와 금니 등은 금괴로 만들었으며, 머리카락은 모아서 카펫을 짰으며, 뼈를 갈아서 골분비료로 썼다고 한다. 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본 가스실에선 유대인의 통곡과 비명이 들려지는 것 같았다. 나치의 잔학행위에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유네스코가 1979년 이 곳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하고, 폴란드 국민들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와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몸소 체험한다고 하였다.

이곳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 한편이 아려오며 눈물이 났다. 그리고 폴란드 국가의 제목이 생각났다.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마 그 수용소에서 악몽의 시간을 지내는 유대인들의 마음 아니었을까 싶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자유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 연합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은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소리라고 생각한다. 전쟁과 아픔, 슬픔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나라와 민족위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피를 심으며,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며, 주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여야 할 것이다.

폴란드의 도시들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였다. 이곳에서 평화원정대 단장이신 은희곤 감독님께서 UN 빈 사무국에 지금까지 서명받은 서명지를 제출하셨다. 그리고 벨베데르 궁전 미술관에 방문하여 자크루이 다비드의 “알프

스를 넘는 나폴레옹 초상화”와 구스타프 크림트의 대표작품 “키스”를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해 와서 그 그림 앞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저렇게 모여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도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짐을 다시 깨닫고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5개국 10개 도시를 모두 탐방하며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며, 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체험하고 공감한 하나님의 평화와 연합의 의미를 찾아내고 알리기 위해 파견된 하나님의 특사 “평화드림 5만리” 공동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마지막으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비엔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처음 평화와 연합을 위해 결단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와서 해단식을 가졌다.

이렇게 2주 동안의 길고도 짧은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란 연장을 들고 평화와 연합의 길을 만들면서 일치와 사랑을 위해 더 크게 호소하는 평화의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보배를 다시 꺼내들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손잡길 기대해 본다.